

교통·숙박·안전 다 잡은 경주, APEC 개최 '꽤기'

주낙영 시장, 유치계획 현장 발표
이철우 도지사·김석기 의원 동참
103개소 4463실로 숙박시설 충분
포용적 성장가치 최적 모델 타당
짧은 이동 거리 등 외부 경호 제격
4개 공항 등 우수한 교통까지 갖춰
주 시장 "모든 분야 경주가 탁월
유치 필수해 성공 롤모델로 승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발표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PT발표전 필승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계획' 현장 발표에 직접 발표자로 나서며 경주의 당위성과 강점을 피력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경주 개최에 강한 의지와 경주 선전에 온 힘을 보탰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초발언을 통해 "경쟁후보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초자치체인 경주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에 정상용 5성급 호텔, 리조트 등 103개소 4463실의 숙박시설(정부대표

단 수요대비 157%)을 보유하고 있는 상계 현황을 설명하면서 경주 숙박문제를 일축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000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며 APEC의 포용적 성장 가치와 지방균형발전에 최적 모델은 경주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지는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거리로 이동이 매우 짧으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타 후보 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으로 설정, NGO 등 외부 경호의 요새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 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지난 2022년 비즈니스 국제회의의 북마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500만대의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군사 3개, 민간 1개)과 KTX, SRT 등 우수한 교통망도 선보였다.

특히 G20 재무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의 풍부한 노하우와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다

낭 등 역사·문화 중소도시에서 성공 개최한 사례를 들어 경주의 당위성을 재 강조했다.

경주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궈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 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로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임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 인구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그만큼 경주가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는 방증임을 피력했다.

주낙영 시장은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위해 경호·안보, 숙박, 회의·전시, 항공, 파급효과 등 모든 분야에서 경주가 탁월하다"라며 강조하고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해 경주는 물론 경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로 승화시키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박상진기자wba112@daum.net

삶·일자리·문화 결합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본격화

8개 시·군 8곳 마스터플랜 수립
부지 10만㎡ 이하, 50~100세대
생산공동체·복합은퇴촌 등 추진

경북도는 미래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 실현을 위한 8개 시·군 8개소(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의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인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하 천년건축)은 그간 산업화 시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건축물이 문화예술작품으로서 가치보다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오던 것을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담긴 예술작품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맞춰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삶, 일자리, 문화가 결합된 주거단지로 사업부지 10만㎡ 이하, 50~100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의 유형이 있고 사업추진에 공공 및 민간 분야를 구분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 추진

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마을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설계 용역 등을 시행 중이며 천년건축 2차 사업 대상지를 각 시·군에 공모해 이달 중 선정한다.

앞으로 사업이 2차까지 활성화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상을 막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올해 4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승효상·김영준 건축가가 설계 중인 '하회 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은 경북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천년

건축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경주와 네트워크 환경 제공을 위해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일대 2만8000㎡ 규모 부지에 약 50세대 정도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30~40년 동안 아파트가 주거 공간으로서 생활환경문화를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지역의 문화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의 주거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가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 마련과 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등을 활용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日 입맛 사로잡는 '대구막창' 맛보이소

시, 11월까지 관광 캠페인 운영
문예진흥원·관광공 협력 추진

대구시와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는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2024 대구막창 캠페인'을 통해 지역 음식 관광 상품 마케팅과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문예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일본 관광객이 선호하는 미식여행을 테마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대구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대구의 대표 음식골목인 안지랑 곱창막창 골목의 상인들과 협업을 통해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일본인 관광객을

에게 2만원에 대구막창 특별 정식(2~3만원 상당)이 제공된다.

일본인 대상 '한국 미식 30선'에 대구의 대표 음식인 대구막창이 선정되는 등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 방문 이유 1위가 '한국 음식(20%)'인 만큼 K-푸드 미식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일본 관광객의 방문이 기대된다.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본격적인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기자단 및 현지 여행사 대상 캠퍼 투어 추진과 일본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게시물 업로드 등 현지 언론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구막창을 홍보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백 제 보 러

익 산 가 자

국보
미륵사지
사리장엄구

국립익산박물관·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362

‘일하는 의정’ 9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마무리

28일까지 282회 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 심의·행감 등 실시 9대 후반기 의장단 29일 선출 의원 발의 조례 등 18건 상정



경주시의회는 지난 7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오는 28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년간 이어져 온 제9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8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한다.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실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더불어 시정질문이 진행되며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9대 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

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한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원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김항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희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또한 ‘대한민국 경주시와 중국 장자제시 간 친선결연(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동천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 및 ‘202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경주시민의 큰 기대를 안고 개원한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확대하고 조례안의 의원 발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후반기 의회는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 경주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경북도의회, 미래 먹거리 발굴 ‘집중’

12대 전반기 347회 마지막 정례회도 행정·교육행정 등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만전 ‘유종의 미’

경북도의회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화·황명강·김경숙 의원이,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허복·박재아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

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51건의 조례안과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과 포항·구미 특화단지 유치, 안동·경주·울진 신규 국가 산단 선정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김건희 특검’ 전에 ‘김정숙 특검’ 순리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 풀어야

김석기, 기자회견서 의혹 제기 인도 선물로 만든 의류 미제출 “현행법 전면 위반 형사처벌안 셀프 초청 등 특검 시행” 촉구

김정숙 여사 일행의 ‘셀프 초청’에 대한 논란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당시 받은 선물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문 전 대통령과 지난 2018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인도 측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블라우스는 4개월 전인 7월에 사비타 코비드 인도 대통령 부인에게서 선물 받은 사리로 만든 것으로 이는 명백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기록관은 해당 블라우스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는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보관돼야 할 블라우스를 제출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에 따른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대통령실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못 박았다.

실제로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라



면 지난 2018년 7월 당시 인도로부터 받았던 사리 13세트 중 블라우스로 만들어진 사리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 중이다.

김 여사가 블라우스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가액 10만원 이상의 선물은 신고 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라며 “이를 손상하고 무단 방출한 행위는 현행법을 전면으로 위반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온갖 특검을 우기고 있는데 그에 앞서 ‘김정숙 특검’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일 것”이라며 김정숙 여사의 ‘혈세관 광 의류’ 및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임이자, 국비 확보해 시민 숙원부터 챙긴다

국힘 경북지역 의원·예산정책협 상주·문경 주요 현안 지원 요청

임이자 의원이 상주·문경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임 의원은 지난 5일 개최된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경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상주·문경 주요

현안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주요 실·국장 등 도 관계자와 경북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이 도지사님과 실·국장에 상주와 문경 주요 현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및 점검을 강조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주시 주요 현

안 사업은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상주 내서 신촌-서원 국도 개량 △청년창업형스마트농업단지조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지원 △상주시 우하리 백두대간 생태통로 설치 △비점오염저감사업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사업 △경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이다.

문경시 현안 사업의 경우 △문경-김

천 철도(문경-상주-김천) △경북선(점촌-영주) 철도 △폐광지역 관광산업활성화 사업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조성사업 △삼관 르네상스 지원사업 등이 논의됐다.

임이자 의원은 “상주와 문경의 도약을 위해 당장소통이 중요한 만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정책협의회가 오를 개척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앞으로 4년간 국비 및 입법과제들을 확실하게 챙겨 시민께 약속한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해내겠다”고 말했다.

임창원기자changwan12@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조기퇴근 돌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학교 돌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5px;">🕒 심야 돌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형 새마을운동, 중아공 발전 원동력 된다

중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내방 새마을운동 통한 국가변혁 논의 성공 안착 위한 관심·지원 약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접견실에서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테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양국 간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상호 협력 방안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포스탱 아르상제 투아테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참석 후 국가변혁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경북도를 우선 방문했다.

중앙아프리카의 주요 정부 요인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서 경북도 새마을운동을 극찬하고 중앙아프리카가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자국에 확대 시행할 것을 시사했다.

중앙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으로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있는 국가다. 지난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 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나 1991년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으로 안정을 되찾았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광업으로 세계적 카카오 재배와 커피콩 생산지이며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풍부하다.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427달러



수준으로 국민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열악한 국가이다.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 경북도를 방문한 중앙아프리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건 개발도상국에 본보기가 되는 국가다. 대통령실 산하 한-중앙공 새마을위원회를 설치했고 중앙아프리카에 새마을 거버넌스가 마을 단위부터 시작해 우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2022년 방한 후 우리만의 새마을운동인 콰티 코드(Kwa Ti Kodro)를 시작했고 경북도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아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양방향 새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특히 경북도에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발전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라며 “중앙아프리카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곳곳에 새마을운동 정신이 보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

다”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022년에 이어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후 특별히 경북도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오랜 식민지 등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이다. 한국 근대화의 원동력이던 새마을운동, 한국문화, 디지털 등이 중앙아프리카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중앙아프리카 현지에서 인재 양성과 농업혁신으로 이어져 마을 단위로 시작해 지역사회, 국가 발전 나아가 중앙아프리카 변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면서 “중앙아프리카 성공을 위해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지난 2022년부터 고위급 새마을초청연수, 국가변혁사업, 새마을연구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모범기업인 아진산업(주)이 글로벌 기업 사회적 책임(CSR) 사업비 17억원을 유치하고 2023년 11월 8일 중앙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새마을재단을 통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새마을사업에 함께 추진하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접수... 17~21일 경북도·포항·안동·구미교육청 현장접수... 온라인 신청도 가능

경북교육청은 지난 7일 도 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원서접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도 교육청과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할 수 있고 나이스 검정고시서비스(kged.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해 오는 20일 오후 8시까지 접

수할 수 있다. 시험은 8월 8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하며 △일반인인 포항해공고등학교(포항)와 천성중학교(구미), 복주여자중학교(안동) △재소자는 안동고도소와 김천소년교도소 등 총 5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8월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검정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중등교육과 학사고시담당(054-805-3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기업인으로서 저출생 극복 앞장”

동원약품·우성철강·대영전자 등 저출생 극복 성금 약 2천만원 기탁

대구경영자회 회장단은 지난 7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 극복 성금 6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북도에 전달했다.

성금 전달을 위해 대구경영자회 회장단 기업들인 ㈜동원약품(회장 현수환), 우성철강(회장 김영만), 대영전자(회장 백서재)에서 각각 2000만원을 기부했다.

백서재 대구경영자회 회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과 전생애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기업인으로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경영자회 회장단분들의



성금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극복에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대구경영자회 기업들이 전국 최고의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저출생 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주관 단체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개인, 각급 단체, 기업인, 해외교포 등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모금을 시작한 이래 29억원이 넘는 성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성금 모금에 동참한 △동원약품은 의약품 유통 △우성철강(주)은 산업용 철강 제품 제조 △대영전자(주)는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등 지역 우수 기업들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살이 청년실업실 팝업스토어 ‘대성황’

로컬 콘텐츠 상품성 검증 위해 마련 청년정책 브랜드 홍보·제품 판매

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청년 복합문화 공간인 대구 무명당에서 ‘2024 경북살이 청년실업실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을 벗어나 대구 등 다른 지역 청년들에게 ‘경북살이 청년실업실’을 홍보하고 각

실업실에서 만들어낸 로컬 콘텐츠의 상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됐다. ‘경북살이, 청년실업실로 팝업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됐다.

팝업스토어의 2층은 청년실업실의 사업 소개, 프로젝트 전시, 아카이빙 영상 등을 통해 경북살이 청년정책의 브랜드를 홍보했다.

3·4층에서는 청년실업실에서 개발된 위스키 커피, 디자인 굿즈, 농장용 제품 등을 판매하고 푸드 콘텐츠 활용 및 스타일링 스튜디오, 모자이크 디자인

제우기, 토마토 모종 심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또한 로컬전문가와 참여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전충훈 마르텔로 대표, 도원우 리플레이스 대표, 성주현 피카차일드컴퍼니 대표, 심영민 제이샤 디자인 대표와 함께하는 LAB-UP 토크쇼와 네트워킹 파티도 진행했다.

경북살이 청년실업실은 청년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력 개발지원으로 지역 내 일감을 연계시키고 시군과 함께 지역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숙소 등으로 조성해 청년 실업실의 활동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영주 실험실(로컬다이닝프로젝트)은 로컬 푸드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푸드 콘텐츠 브랜딩 지원으로 F&B분야 취창업을 꿈꾸는 프리랜서들을 지원하고 경산 실험실(프리디랩)은 청년 디자이너와 지역산업을 잇는 온오프라인 디자인 플랫폼을 조성하며 성주 실험실(소품마을)은 소품을 컨셉으로 농

업 관련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농(N)잡러 청년 프리랜서들과 함께 지역의 가치를 만들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지난 태풍 상흔 아직도 곳곳에... 올해는 대비 단단히 해야

기상청 분석결과 올해 6~8월은 비 오는 양이 예년보다 많다고 한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사태와 하천범람의 가능성 역시 지난해보다 많아 보인다. 많은 피해를 입은 예전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복구상태와 문제점을 찾아본다. 이달부터 시작될 장마를 앞두고 피해 예방 대책들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찾아본다.

경북북부 하천 복구율 20% 저조 산사태 피해 공사현장 진도 60% 공사업체 선정·피해예방 설계 등 단계별 복구 과정의 난항 원인 전문가들 “올해 비 피해 클 것 사전대책 마련 시급하다” 주장

예천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은 비 피해 복구를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나 월상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올해 또다시 발생할 피해의 사전 예방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지난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해를 본 8개 지방하천의 11개 공사현장에서 현재 1824억5300만원을 들여 복구 사업을 하고 있다. 11개 시·군의 산림

및 산사태 피해현장도 187건 677개소에 45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하천 제방 및 호안 교량공사는 불과 20%의 진척도를 보이는 데 그쳐 내년 말이나 돼야 완료될 전망이다.

산림 및 산사태 피해현장도 피해 현장 계약과 착수 발주율은 100%인데 반해 공사현장 진도는 60%에 그쳤다.

피해복구가 이같이 늦어지는 데는 예산이 신속히 집행됐음에도 공사업체 선정 및 항구적인 피해예방을 위한 설계 등 단계별 공사진행 과정의 어려움이 많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자호천 등 3개 지역 하천복구공사의 경우 사업비 558억원으로 보 및 교량 80개소를 공사 중이나 만 2년이 지났는데도 공정률 75%로 올해 말이 돼야 완료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경주지역의 복구현장도 이



달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포항 6개 하천, 경주 11개 하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교량 55개소에 호안공사 등을 진행 중이나 4년 후인

2026년에 마무리된다.

경북도는 불가피하게 피해복구 공사가 늦어진 지역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각 시·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피



해 예방대책 회의를 하고 진행사항을 점검 중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비의 양이 지난해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

한 비 피해가 예상돼 항구적인 복구에 앞서 당장 올해 비 피해예방을 위한 사

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주췌, 베트남 유학생 입학금 수억대 가로챌 사기범 구속

도주 중 범인 11개월 만에 검거 47명서 2억7388만원 횡령·사기

베트남 유학생의 입학금을 횡령한 前 유학 알선업자 A씨(56·남)가 도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8일 A씨를 도주 11개월 만에 동거녀 거주지에서 추적 검거

해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년 전 모태대학교와 베트남 유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을 통해 유학생들을 모집하고 지난해 1월 총 40명으로부터 2억2880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모태대학교 협약과는 무관하

게 지난해 4월에는 유학생 7명으로부터 4508만원을 입학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조사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베트남에 있는 것을 이용해 인보이스를 위조해 유학생들을 모집, 대학 측에 보낼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유학생의 입학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빼

돌린 돈은 주로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더불어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대학들이 유학 알선업체 선정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대구의료원, 미복귀 전공의 3명 사직서 수리

정상 진료 위해 수차례 복귀 설득 정부 행정처분 중단에 즉각 처리

대구의료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3명의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이후 대구의료원 소속 전공의 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의료원의 정상 진료를 위해 그동안 해당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한 수차례 설득이 있어 왔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1명은 복귀했다 미복귀 전공의 3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의료원의 신속한 정상 진료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게 된 것이다.

김시오 원장은 “지난 4개월간 전문의 중심의 비상진료체제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지만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진료 공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경북경찰청장, 23개 관할서 방문 종료... 내실 제고 '톡톡'

청도췌 방문해 유공직원 표창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지난 7일 청도경찰서를 찾아 유공직원을 표창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청도군 조형물 납품 사기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지능팀 정다운 경장과 새벽시간대 특수절도범을 끈질긴 수색으로 검거한 금천파출소 송구일 경사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청도경찰서 방문을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 소속 23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무리한다.

김 청장은 그동안 고령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현장 점검,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현장 점검, 성주경찰서 농번기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점검, 봉화경찰서 실종자 수색 ITX 현장 점검, 영양경찰서 지역축제

인파관리 현장 점검, 경산경찰서 범죄 예방 환경개선 현장 점검 등 시기·장소별 맞춤형 현장방문을 진행해 왔다.

김 청장은 “경북은 관할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만큼 각 경찰서에서 특성과 시기에 맞는 경찰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현장방문과 점검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월성본부, 신월성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신월성1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 kW급)가 지난 7월 오전 10시 3분에 발전을 중지하고 제8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월성1호기는 지난 2014년 1월 4일부터 올해 6월 7일까지 3366일 동안 7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해 원전의 안전성과 운영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신월성1호기는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원전연료교체,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설비개선을 진행한 후 오는 7월 22일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버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 기틀 마련 '박차'

소극행정 혁파·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 선정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도 매진

경주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2024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제2회 경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는 △단체장 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로는 △경주형 외국인 계절근로 종합시스템 구축 △외국인 감염병 예방 사업 △젊은 고당이 카카오톡 상담채널 운영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료검진 △어린이 건강튼튼 배움터 운영을 지정했다.

이어 △지방하천 준설토 사토처리 및 매각추진 △2024 LCK 서머 결승전 개최 지원 △외동 급수구역 공급체계 개선사업(5차) 외 3건 △산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공전 부지 성토 등 총 9건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으로 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으로 시민편의 증진'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등을 신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일상 속 적극행정 업무에

대한 성과나 노력을 인정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넘어선 시민 체감형 적극행정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직원들이 일상 업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통해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국민 신청제, 마일리지 제도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APEC 유치 염원 '경주시민의 날 행사' 성료

지역발전 이바지한 주역 3인 시상 APEC 개최 기원 레이저쇼 '눈길'

경주시는 지난 8일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서 열린 '제17회 경주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2025 APEC 경주 유치를 향한 시민의 염원을 한껏 고조했다.

'시민과 함께, 언제나 경주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시민들과 시청 성과와 경주 비전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시민과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를 염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주시와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전북 익산시, 중국 시안시, 일본 닛코시, 체코 트레비치시 등 국내·외 4개 도시에서 보내

온 축하와 '2025 APEC 경주 유치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온 손영규·이영호·한주식씨 등 3명이 경주시 문화상을 수상했다. 경주시는 이날 레이저 미디어 쇼를 통해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넘어 미래 첨단과학 도시로 도약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밝은 경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2025 APEC 경주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숭고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3000여명 참석해 순국선열 추모 호국보훈 관련 사진·내용 전시

경주시는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황성공원 내 충혼탑에서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의원, 이철우 시장의 장,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했다.

시는 이날 충혼탑 입구에 6·25전쟁과 월남참전 등 관련 사진 및 내용을 전시하고 충혼탑 내 안보교육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호국보훈에 대한 개념을 알리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은 오전 10시 전국적



으로 울리는 사이렌 취명에 맞춰 1분간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

는 대한민국의 목숨 바쳐 헌신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 존립 이유와 애국의 참 뜻을 되새

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경주페이 사용하면 5% 추가 할인 '팡팡'

사업비 4억2000만원 확보 올해 연말까지 최대 12%

경주시는 중심상권 내 경주페이가맹점에서 오는 7월부터 경주페이 사용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주페이 캐시백은 올 연말까지 기본 7%에 이번 5% 추가 혜택을 더해 총 12%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용처는 북정로, 봉황로, 중심상가 등 시내권 경주페이 가맹점 100여 곳이다. 또한 중심상권 내 51곳

경주페이가맹점주가 자체 3-5%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혜택은 특별 할인가맹점'도 앞서 운영해 왔다.

이용자는 경주페이 결제 시 가맹점에서 설정한 할인 요율로 혜택을 적용받는다. 가맹점은 단골 고객 유치로 매출 증대와 모바일 경주페이 앱에서 가맹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원도심 내 상인회 협조와 공모사업 홍보를 통해 가맹점 신청을 받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가스위험상해·개물림 관련 등

경주시는 오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가스위험상해 사망 △가스위험상해 후유장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개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가스 사고는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는 최대 50만원의 한도로 각각 보상한다.

응급실의 경우 경주 내 동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응급실만 해당된다.

올해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등의 사망 및 후유장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개인 실손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일 당시 경주시민이라면 이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문화재 활용 지침서 '서악마을 이야기' 출판

국가유산·마을 관리 사례 담아

진병길 신라문화원 원장이 '서악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다.

'서악마을 이야기'는 지난 2010년대에 시작된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담은 책이다. 이 사업은 제1회 정부혁신박람회(2019년)에서 문화재청의 혁신사업으로 선정돼 소개되기도 했고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번 국가기관의 상을 받은 바 있다.

책 속의 풍부한 사진과 안팎의 이야기를 통해 문화유산 활용, 도시재생, 마을 가꾸기, 로컬 크리에이티브 사업 등에 관심이 있는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통찰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악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마을 전반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깊이 마을을 즐길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할 것이다.

진병길 원장은 "이 책은 그간의 문화유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 지역의 민간 단체가 어떤 창의적 노력을 해왔는지, 마을과 관청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협업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과제를 놓고 씨름하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활



용, 마을 가꾸기 등에 풍부한 사진 자료를 담고 있어 최근의 로컬문화 개발 흐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실전 가이드북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 책에는 지난 14년 동안 서악 마을을 민·관·기업이 뭉쳐서 힐링관광마을로 거듭나게 한 이야기가 담겨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 신라 천년의 고도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1번지 경주의 아름다운 서악 마을을 널리 알리게 돼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한국수력원자력주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안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노사 서로 이해·존중하길”

투자기관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
소속 공공기관 노사 관계자 격려
협약문 발표·계속고용 정착 다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는 ‘투자기관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에 참석해 소속 공공기관(교통공사, 공공시설관리

공단, 도시개발공사, 대구의료원) 노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시장, 이만규 시의회 의장, 정병화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이장재 대구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대구시민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공공기관 근로자를 격려했다.

행사는 대회사, 축사, 노사상생 협력 선언, 축하공연, 명랑운동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투자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4개 기관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노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관한 협약문을 발표하는 등 광역 단위 전국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다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올해 공공기관에서 이룬 성과는 기관장의 혁신 의지와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며 “오늘 노사 한마음 화합대회를 계기로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 지역 기업 품질 개선 성과 ‘한자리에’

품질분임조 경진 15개 팀 수상
탄소중립 등 다양한 분야 활약

지난 4일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대구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주식회사 금강알텍 소속 ‘다이아몬드 분임조’ 등 1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탄소중립 등 13개 부문 17개 분임조가 참가한 대구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지역 내 기업·공기관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 방법을 스스로 고민하고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대회로 분임원들의 토론과 협력을 통해 품질 개선, 제안, 상생협력 등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탄소중립 분야에서 주식회사 신도의 ‘그린테크’ 분임조는 냉간 단조 제조 기술 개선 및 에너지 데이터 관리로 탄소 배출량 감소, 현장개선 부문의 ㈜동신씨엔티 ‘향고래’ 분임조는 EVA 배합 공정개선으로 부적합품률 감소를 통해 원가절감하는 등 15개 분임조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빅데이터·AI 부문에 출전한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스마트업 대구’ 분임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송전설비 공사 원가산정시간 단축으로 연간 1억 8000여만원의 절감을 통해 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들 우수 분임조들은 주제 선정과 원인분석 및 개선안 도출의 적합성, 구체적이고 표주박된 사후관리 등의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다이아몬드 분임조’ 등 15개 분임조는 오는 8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노후한 군위농공단지, 생활·문화 거점으로 싹 바뀐다

산단공 대구본부와 협력관계 구축
85억여 투입... 청년·경관 다잡아

군위군에서는 4년간 국비 60억원을 포함 85억여원을 투입하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일 이영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을 만났다.

군위농공단지는 약 30만㎡ 규모에 입주한 36개 기업 중 92%인 33개 기업이 가동 중일 정도로 활성화돼 있지만 지난 1992년 준공돼 노후 농공단지로 지정된 만큼 부족한 복지·문화·편의 시설과 낙후된 경관으로 인해 농공단지 구성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위군에서는 군위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위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구성됐다.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연면적 99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해 농공단지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들인 북카페, 건강증진실 및 체력단련실, 코인세탁소, 공유주방, 기숙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 준공돼 운영 중인 농공단지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식당과 회의실로 활용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노후 산

업단지의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등 경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근로자 쉼터를 조성해 고용노동부 일터 혁신사업의 제1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휴게시설 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열 군수는 “그간 농공단지별 방문할 때마다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우리 군위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 근로자들이 만족하는 농

공단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위군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전담하는 ‘농공단지 환경조성 통합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난달 22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군위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정승수 기자power5151@naver.com

더 환한 LED로 걱정 끝! 대구, 자동차 사업자 지도·점검... 불법 행위 근절 ‘앞장’

시설관리공, 노후 방전등 교체
7월 2일까지 월곡로 등 4개 구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7월 2일까지 28일간 월곡로 등 4개 구간의 조명등 교체공사를 실시한다.

공사 구간은 월곡로, 호국로, 송라로, 청호로 4개 구간으로 공단은 공사 기간 동안 총 401개의 노후된 방전등을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는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탄력적으로 시행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28일까지 약 한달간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 종합검사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지도·점검에 나선다.

우선 지역 내 주사무소를 둔 57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격 확인 준수 여부 △대여자동차 및 차고지 관리 상태 등 대여사업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 대여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RIMS)’를 통해 운전자격 확

인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운전자격이 없는 자의 자동차대여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신고된 55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중 33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업무 전반에 대해 관할 구·군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지정된 81개 자동차종합검사사지정정비사업자·지정정비사업자 중 4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기간 중 13일간 자동차 검사업무의 적정성 및 시설관리 상태 등

사업장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특히 기간 중 4일간은 환경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대상 업체 중 △민원 민발 업체 △검사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 △기술인력 변동이 상대적으로 잦거나 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현장시정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및 직무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보건대, 2024학년도 취업 경진 시상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3일 ‘2024학년도 취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회는 14개 학과 재학생 337명이 참가했으며 개인별 입사지원서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22명이 선정됐다. 이후 대면 모의면접을 거쳐 본선 진출자 중 최종 7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서류전형과 모의면접 심사점수를 합산한 결과 22명 △대상: 방사선학과 하승범 △최우수상: 임상병리학과 김민석 △우수상(5명):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과 천세은, 방사선학과 강한영, 작업치료학과 목보현, 임상병리학과 김민정·최초민 △장려상(5명): 간호학과 남혜원, 임상병리학과 김나은·배은진·정효민, 물리치료학과 신우석 △입선(10명): 임상병리학과 고민서·김다은·오세웅·유미애·이지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선주원·윤동희,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이연우, 물리치료학과 이진수, 보건행정학과 정지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시설관리공, 위험물 창고 소방 훈련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 3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내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달성소방서와 함께 ‘2024년 상반기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 대비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14명, 달성소방서 소방대원 5명, 군민 3명이 참가한 가운데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정충찬 기자gst3000@naver.com

살국유사의
달성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동시가 학업·살림 챙기자 '대학생 몰렸다' 가치 있고 살고 싶은 영양 만들기 '속도'

인구 유입 3개월간 843명 증가 2016년 도정 이전 이후 가장 큰 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한몫

지난 5월 말 기준 안동시 인구는 15만3500명으로 4월에 비해 519명이 증가했다. 올해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3개월간 증가한 인구는 총 843명이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한 이후 가장 큰 증가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배경에는 올해부터 시행한 지역 내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에는 국립안동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총 3대의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간 안동시는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



큰 효과가 있지 않았다.

이에 민선8기 시의 공약사업으로 지역 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는 대학생에게 학년당 1회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대학교가 위치한 용상동(427명), 중구

동(66명), 서후면(58명)의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20-29세 인구가 340명, 10-19세 인구가 161명 증가해 사업에 따른 효과를 잘 보여준다. 사업 신청이 끝나는 이달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한 인구 증가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에게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영주시,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에서 진행된 438명의 인구가 유입된 바 있으며 올해 안동시는 135명의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다. 올해 5월까지 사망자 수는 771명이지만 출생자는 247명에 그쳐 자연증감 인구는 524명이 줄었다.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건강관리 지원, 생애초기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및 은하수랜드 건립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농축산부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사업비 366억 투입 기초거점육성사업 등 농촌 활성화

영양군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36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거점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군에서는 협약 선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 2022년부터 농촌공간전략 계획과 농촌공간활성화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비롯한 사업 부서 및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의로 완성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사업추진 가능성, 추진 의지, 조직 구성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협약으로 영양군은 160억원 규모의 영양 버스터미널 복합화를 추진하고 입암·일암·수비·석보면의 지역거점시설 건립(각 40억원)과 청기면의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지역 내 6개 읍·면 공간 전체의 농촌다움 복원과 생활서비스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살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라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일자리·주거·경제기반·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문경 찾은 전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들, K-문화에 '홀딱'

선수·임원 260여명 상호교류의 장 지역 전래놀이 체험 통해 친선 도모

전 세계 군인들의 태권도 축제인 '제27회 경북문경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참여한 260여명의 선수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K-문화 체험의 장'이 문경 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선수 및 임원들에게 K-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고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상호 교류의 계기가 됐다.

이번 행사는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주최하고 ㈜마실가자에서 운영했으며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오미자



테마터널을 탐방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한복체험 △떡메치기 △제기차기 △떡지치기 △투호던지기 △오징어게임 △강강술래 등으로 구성된 한국 고유의 전래놀이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특히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의 '문화 콘텐츠'를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새재소풍' 프로그램과 접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한 외국인 선수는 "태권도의 중국인 한국에서 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겨뤄 보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욱이 한국의 전래놀이와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행복

하고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순인 대표는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시 문경시,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주신 문경새재관리소 관계자와 정책기획단 임혜림 팀장님과 김정섭 학예연구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의성,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 대폭 확대

기존 43곳→350곳으로 확대 운영 치과·한방·치매 등 다양한 분야

의성군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를 병·의원 없는 43개 리 마을에서 350개리 마을로 확대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운영 중인 '찾아가는 통합 이동진료'는 치과이동진료 버스를 이용해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을 순회하며 치과 및 한방진료, 치매·정신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민간 병·의원 없는 350개리 중 진료차량이 주차가능한 150개 마을을 75개 리로 나눠 격년으로 이동진료를 운영하고 주차공간이 협소한 인근 275개리를 연계해 해마다 350개 리 전체에 통합 이동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더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의성군보건소와 종합자원봉사센터 간 협약식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지역 주민의 의료와 복지 만족도를 함께 높이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주,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자연환경 보전 '잔결음'

박남서 시장 '녹색도시 조성 힘써'

영주시는 지난 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생활실천'이란 주제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보전 실천에 앞장서 온 유

공자 표창, 기념사, 환경시 낭독 등 본 기념행사와 더불어 색소폰 연주, 모듬북공연, 화확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됐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 동영상과 경북119산불특수대응단 산불예방 홍보 활동 및 사진 전시를 통해 자연환경보

전의식을 고취하고 녹색실천 참여를 유도했다.

박남서 시장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환경보전에 대한 소중

함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녹색강국 대한민국, 녹색도시 영주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유엔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6월 5일을 기념일로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윤영성 기자bk01410@naver.com

봉화군, 찾놀 Free Play 버스 '큰 호응'

학교 휴업일 돌봄 공백 해소 도움

봉화군은 지난 7일 석포 지역 초등학교 60여명을 대상으로 석포행복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놀이터 '찾놀 Free Play 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찾놀 Free Play 버스는 농촌 지역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형성과 지역 내 돌봄·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영유아 중심 프로그램과 달리

인근 초등학교 재량휴업일에 맞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점을 둔 맞춤형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재량 휴업일을 맞아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지역 초등학교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입소 아동 외 일반 아동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심·여가·놀이공간을 제공하며 학교 휴업일 돌봄 공백 해소에 힘썼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남부내륙 철도 '김천~서울 70분 시대' 연다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 포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通 사업비 1조7천억 증액 확정... 관광 활성화·지역 발전 기여

김천시는 지난 5일 개최된 재정사업 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사업'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국비 사업의 총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적정 증액 규모 인지 검토하는 절차이다.

지난 2022년 시행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4조9438억 원이었으나 기본설계 과정에서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 및 '터널 굴착공법 안정성을 보장' 등이 추가 반영되면서 총사업비가 증가해 적정성 재검토를 추진했으며 재검토 결과 당초 1조7000억원이 증액된 6조646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8km 구간에 철도를 신

설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김천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10분, 김천역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30분 만에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어 김천시 관광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섭 시장은 "김천역은 남부내륙철도는 물론 중부내륙 및 동서횡단철도의 중심역으로서 김천의 미래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환승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영 요구하고 이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고령 경제 '활기'

군, 보고회 열어 실적·대책 논의 특례제도 적극 활용 집행률 제고

고령군은 지난 5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보고회를 통해 물가상승 경기악화 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이번 보고회는 이원철 부군수의 주재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을 위해 담당별 미집행 사유 분석과 소비·투자분야 집행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집중 논의했다. 또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상반기에 반드시 계획된 금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상반기 신속집행을 1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부진사업 위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선금지급, 긴급입찰 및 관급자재대 선고지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 집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철 부군수는 "물가상승 및 경기악화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소비 투자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상반기 공공부문 예산 신속집행에 대해 전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성주군-성주우체국-우체국공익재단, 고독사 근절 '한뜻'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 40~64세 고독사 위험 중장년 등 위기가구에 우편 배달 안부 확인 12월까지 140곳 월 2회 서비스 제공

성주군은 지난 5일 성주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과 '안부살핌(LOVE)지(紙)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복지·안전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안부살핌(LOVE)지(紙)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40세 이상 64세 미만 고독사 위험 중장년을 비롯한 단전·단수, 관리비 체납자 등 복지 위기가구에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생필품이 든 물품)을 주기적으로 방문 배달하며 안부확인 결과를 성주군에 회신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위기가구 감지 가구에 신



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관리가 필요한 고립가구 140가구에 월 2회, 연간 2000여건의 안부살핌 우

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주민 정보력에 밝은 우체국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실시로 고독사 위기 의심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

속적인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i515@daum.net

구미교육청, 마을학교 운영 활성화 '집중'

미래교육지구실무추진위 협의회 시청과 적극 협력 애로 해소 약속

구미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교육지구의 협력체계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미미래교육지구실무추진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구미교육지원청 및 구미시청 업무담당자, 교원, 미래교육지원센터 대표, 지역인사, 마을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미래교육지구 사업기획, 업무지원 방안, 마을학교 운영방안, 마을교사 발굴 및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구미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는 기획형과 자율주제형으로 운영이 되고 공모방식을 통해 지역 기관 및 단체를 모집한다.

이날 마을학교 운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미교육지원청과 시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키로 약속했다.

남성관 교육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마을학교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시청-학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오늘 협의회와 같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미래교육지구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총 16억원(교육청 8억원, 시청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과 함께 미래로 향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교육거버넌스 구축,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역 특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칠곡군, 다채로운 '금연주간 행사'로 주민 건강 사수

해시태그 챌린지 등 2주간 실시 남녀노소 동참 건강 관심 향상

칠곡군은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흡연의 위해성과 금연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주간에 걸쳐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주간 행사를 진행했다.

칠곡군민을 대상으로 칠곡군 공식 SNS를 통해 '이참에 금연' 해시태그 챌린지를 진행했고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 심화형 운영교인 왜관초등학교 등 7개 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토크콘서트와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낙산초등학교에서는 솟품공모전, 금연매점, 금연미션부어, 건강체험부스

를 운영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구강보건 날(6월 9일)과 연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24개소 96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해 흡연의 폐해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매해 5월 31일로 지

난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을 해롭게 하는 담배를 근절하고 전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했다.

김재욱 군수는 "세계 금연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흡연예방과 금연실천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뜻깊은 기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칠곡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한복 일상화·산업화' 토론회

한복진흥원, 전문가 정책 논의 문화적 가치 확산 등 주제 발표

한국한복진흥원에서는 지난 4일 한복진흥원 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산업진흥법(2024년 9월 15일 시행)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유관기관 및 한복 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복 분야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장동광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한복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지자체 담

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복의 일상화 및 산업화를 주제로 △이민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 연구원이 '한복업은 문화 가치 확산 방안'을 △권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가 '한복업계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접분야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기숙 유급와당박물관 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는 김용식 한복데이 대표, 이수현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서정화 한복 대표, 박인숙 한국의상금실 대표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복의 일상화 및 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복 사업 추진 방향을 구축할 예정이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아리따움 경주점
대표 박 선 이

경주시 계림로 102
☎ 054-749-7979

아시아나스포츠
대표 최 병 진

경주시 화랑로 47
☎ 010-5588-9999

스멜스라이크브레드
대표 황 숙 향

경주시 광종길 24 127호
☎ 054-3523-1308

청도, 3대가 함께하는 행복공동체로孝 널리

'행복한 가정 실천하기' 개최 효행 실천 가정 10가구 발굴해 금반지·청도사랑상품권 증정

청도군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4일 새마을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하수 군수, 김호태 군의회 의장, 도영순 경북도 새마을부녀회장 및 군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새마을지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행복한 가정 실천하기'를 개최했다.

가정의 소중함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5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행복한 가정 실천하기'는 청도군 새마을부녀회가 알뜰 나눔 장터 운영과 새마을 구반 사업 등 부녀회 주관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개최했으며 회원들이 직접 나서 평소 타의 모범



이 되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효행 실천 가정 10가구를 발굴, 표창했다.

이날 행사는 조순계 청도 부녀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도영순 경북도 부녀회장의 유공자 표창 및 김하수 군수의 표창패 전달이 있었고 이어 조순계 군 부녀회장이 새마을부녀회원들과 직접 준비한 금반지와 청도사랑상

품권(10만원 상당)을 수상자들에게 부상으로 전달함으로써 수상의 가치를 더했다.

김하수 군수는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역할이 나날이 바뀌는 요즘 3대가 함께 살면서 효행을 몸소 실천해 타의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청도행복회장)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준 공경하기' 실천과 효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경산시, 일·쉼 다잡는 농촌 만들기 '힘'

농축산부 농촌협약 공모 선정 2025-29년 연차적 사업비 투입 농촌공간·생활권 활성화 '박차'

경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림부 역점사업으로 지역 농촌의 경주 여건 개선 및 경제기반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경산시가 수립한 농촌지역 발전 20개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촌협약 주요 사업으로는 △하양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와촌면·남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진량읍·압량읍·용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2단계) 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산시는 농식품부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다음해 상반기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

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마무리 중인 진량 다문리, 압량 신월리 기초생활거점과 공사 중인 남산면 기초생활거점 및 설계 중인 자인면 기초생활 거점과 더불어 8개 읍·면 주민의 부족한 문화, 체육, 복지 등 불편 없는 지역 생활권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용성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총 240억원(국도비 1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농림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대형 사업 2개를 동시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조현일 시장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돼 읍면 주민의 경주 여건 개선과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경북도 농촌활력과, 한 국농어촌공사 경산지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우수 평생학습도시 롤모델 포항, 전국 곳곳서 벤치마킹

예천군의회 방문단 20여명 내방 포항 평생학습원서 성과 등 견학 이강덕 시장과 사업 추진 방향 공유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예천군의회에서 군의원 9명 및 직원 11명이 우수한 시설과 차별화된 특화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2024년 교육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예천군의회에서 우수 평생학습도시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항시를 방문, 노종철 평생교육사로부터 포항의 사례 발표를 청취하고 평생학습원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

또한 이강덕 시장을 만나 포항의 평생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오후 일정으로는 죽도시장, 스페이스워크 등을 방문했다.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은 "포항시 평생학습원의 규모와 다양한 시설, 체계적인 교육 등을 살펴보고 예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충절과 충효의 고장 예천군의원들의 포항방문을 환영한다"라며 "신규 평생학습도시 예천군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울릉의 맛' 경북식품박람회서 취향저격

큐비엠, 특산물 우수성 소개

울릉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경북식품박람회'에 참가했다.

울릉군은 지역 내 식품제조공업체와 함께 식품비즈니스관을 운영했다.

참여업체인 ㈜큐비엠은 울릉도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소금과 미네랄호소 등을 홍보·판매하고 울릉군은 명이절 임, 호박캐러멜, 호박엿, 호박막걸리

등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를 홍보해 울릉 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대외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이벤트를 진행해 울릉군의 특산물을 제공하는 등 즐거거리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남현권 군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식품산업의 다양성과 앞으로의 울릉도 지역식품 발전 방안에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영천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에 '네 번째 맨발길' 조성

주민·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제공 자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안정

영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과의 교감을 위해 신녕천 고향의강(영양교 서단-삼모산 아래) 공원에 맨발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

며 자연 속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맨발길은 총 길이 1.1km로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 내 메타세쿼이아가 식재돼 있는 공간에 조성될 예정이며 최근 건강 걷기에 관한 관심에 부응해 맨발로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은 지난 2018년 도 준공해 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소공

연장, 물놀이장 등 문화, 체육, 레저 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서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신녕천 고향의강 공원 홍보 및 안내시설(표지판)을 추가 설치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또 하나의 명품 영천 강변공원 시설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

다"고 말했다. 또한 "맨발길 유지·관리는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안전 및 유지관리에 힘써주시는 직원과 근로자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영천강변공원 내 맨발황톳길(영화교 동편), 우로지 황톳길(우로지 동편), 우로지 자연숲 맨발길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여가공간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농축산부 우수 농어촌 축제 선정

울진군은 오는 15일 근남면 구산3리 굴구지 산촌마을에서 왕피천 피래미 축제를 개최한다.

주민주도로 시작된 왕피천 피래미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전국 우수 농어촌 축제에 선정됐으며 울진군 대표 마을 자체 추진 축제 지원사업이기도 하다.

피래미 축제는 더운 여름날 피서를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어린이와 어

른이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제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를 이용한 전통 피래미 낚시, 풍년기원제, 보물찾기, 농산물 경매,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된다.

손병복 군수는 "피서철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왕피천 맑은 물에서 스트레스와 더위를 씻어버리고 사방으로 둘러싸인 금강소나무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p>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p> <p>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p>	<p>(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p> <p>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p>	<p>경상투데이 광고 문의</p> <p>대표전화 ☎054-748-0070</p> <p>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p>
--------------------------------------------------------------------------------------	-----------------------------------------------------------------------------	--------------------------------------------------------------------------------------------

살기 좋은 청송,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

국비 241억 규모... 내년에 MOU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7곳 대상 농촌 정주여건 개선·삶의 질 UP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하는 것으로 청송군은 이번 공모에 총 346억원(국비 241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또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거쳐 세부 계획 조정 후 최종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인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을 대상으로 △진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현동·현서·안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왕산·파천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협약 체결 후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

게 된다.

청송군은 이번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현장포럼,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등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자 청송군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행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더 살기 좋은 청송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집중적, 장기적 투자를 통해 군민뿐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삶터와 일터 그리고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구미 원평동, 원평자치누리 문화교실 '눈길'

10일부터 개설... 주 1회 운영

구미 원평동이 10일부터 원평마을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원평자치누리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원평자치누리 문화교실은 원평동과 인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상생활 속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통증 치료 스트레칭 강좌인 생활건강 코칭과 라인댄스 2개 강좌를 개설해 주 1회 운영한다.

지난달 8일부터 31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거쳐 강좌당 30명을 모집했으며 라인댄스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생활건강코칭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김철규 위원장은 "문화강좌를 통해 생기고 활기찬 지역주민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원평자치누리 문화교실 외에도 뇌를 깨우는 치매 웃음 치료 강좌도 하반기에 준비 중인 많은 관심과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평마을문화센터는 (구)원평 2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 했으며 1층에는 소회의실, 바독실, 주민정보화실, 문화교실과 2층에는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운영 중이다. 박의분기자ub0104@hanmail.net

경북대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문 활짝'

센터 개소식 열어 관계자 동참 총면적 685.53㎡ 보육실 등 15실 지방 일거리 부족 등 애로 해소 새로운 상주 건설 시발점 기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는 지난 4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경애 경북도 청년정책과장, 이윤호 경제산업국장 등 지자체 인사들과 흥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김호신 경북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경북대학교 인사들이 참석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창업보육센터의



개소를 축하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부서 신규 지정을 받았으며 현재 총면적 685.53㎡로 보육실 14실, 행정지원실 및 회의실 1실, 총 15실을 보유하고

있다.

상주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지정 받기 전인 지난 2011년부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창업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이윤호 경제산업국장은 "오늘날까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를 이끈 경북대학교 운영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새롭게 문을 연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지방 일거리 부족에 따른 지방위기를 타개할 상수도 상주 건설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창완기자changwan12@naver.com

청도 각북면, 주민 솔선수범 마을 가꾸기로 아름답게 탈바꿈

명대1리 꽃화단·벽화거리 조성 메리골드, 영산홍 등 초화 식재 지역민·관광객 다양한 볼거리 제공

청도군 각북면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명대1리 내 꽃화단 및 마을 벽화 거리를 조성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북면 명대1리의 낡고 훼손된 약 193㎡의 벽면을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 유래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와 벽화를 그려 생동감 넘치고 정겨운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화려하고 깨끗한 마을로 탈바꿈하게 됐다.

또한 마을의 유희지를 활용해 꽃화

단을 조성해 메리골드, 영산홍 등의 조화를 식재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했다.

명대1리 이장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예전의 명대1리 마을의 명성을 되찾고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마을을 산뜻하고 아름답게 변모시켜 뿌듯한 마음이 들고 또한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

발적으로 꽃밭을 가꾸고 마을을 꾸미는 데에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우수택 면장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명대1리가 아름답고 특색 있는 마을이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 경관 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각북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열기자artmong0@naver.com

인기만점 '경주체리' 남녀노소 마음에 쏙

체리품평회·홍보 성황리 마쳐

경주시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황리단길 내 효자 손시양 정려비 일원에서 체리 품평회 및 홍보행사를 가졌다.

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경주 체리 품종별 품질 비교평가를 통해 고품질 생산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 체리의 품위 향상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했다.

100년의 오래된 재배역사를 가진 '경주 체리'는 재배면적 70ha의 전국 최대 주산지로 올해 300여t을 수확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생산량의 30% 수준이다.

시는 올해 첫 수확한 품종들을 맛보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그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경주시는 경주를 찾은 가족 및 연인 등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체리 씨 뽕기, 나만의 체리 에코백 만들기,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경북도 농업기술원과 수확기 때 잦은 강우로 열매 쪼개짐 현상을 막고 고품질 체리를 생산하기 위해 전국 으뜸체리 경쟁력향상 시범사업과 노지

체리 개폐형 간이 비가림 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가 체리 전국 최대 주산지인 만큼 지역 농산물 브랜드 명성 제고와 홍보에 더욱 힘써 선진기

술 보급과 소비계층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행사기간 동안 체리 홍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경규기자seouil411@hanmail.net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클래식 음악가의 길 걷는 청소년들... 꿈 펼치는 무대 위에서

대구시향 '영 아티스트 콘서트' 21일 콘서트하우스서 무료 공연
다양한 독주 악기 개성 돋보이는 협주곡 주요 악장 부담 없이 감상

클래식 연주자를 꿈꾸는 지역 청소년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이하 대구시향) '영 아티스트 콘서트'가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전석 무료로 개최된다.

어느덧 57회째를 맞이한 '청소년 협주곡의 밤'이 올해부터 '영 아티스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관객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위촉된 대구시향 박해산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대구시향의 협연자 오디션에서 선발된 김지범, 오명준, 박태연, 김나영, 고보민, 천지연, 변채민과 대구음악협회 주최 제30회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전체 대상을 받은 채서원이 수상자 특전으로 함께 무대를 꾸민다.

첫 무대는 김지범(경북예고2, 피아노)이 헝가리 작곡가 겸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중 제1악장을 연주한다. 오케스트라의 장대한 선율로 시작되는 화려한 악장으로, 이내 피아노가 당당하게 등장해 악장을 이끈다.

이어서 오명준(신명고3, 호른)이 모차르트 '호른 협주곡 제2번'의 제1악장을 들려준다. 지난 1783년 완성된 이 곡은 모차르트가 남긴 네 개의 호른 협주곡 중 가장 먼저 작곡된 것으로 편성



김지범(피아노)



오명준(호른)



박태연(바이올린)



김나영(플루트)



박해산(부지휘자)

이 작고 기교적 화려함도 약하지만 호른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과 칸타빌레 주법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박태연(황금중2, 바이올린)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중 제1악장을 선사한다. 힘찬 바이올린의 선율로 시작되는 1악장은 비장함이 감돌다가 아름다운 주제로 바뀌며 화려한 종결부로 힘차게 마친다.

김나영(매호중3, 플루트)은 이베르 '플루트 협주곡'의 제1악장을 연주한다. 감각적인 선율미와 서정성이 돋보이는 이 협주곡은 지난 1932년 작곡돼 당대 프랑스 최고의 플루티스트 마르셀 모이즈에게 헌정됐다. 역동적인 독주 플루트의 주제는 이베르의 개성이 한껏 드러나며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면 채서원(경북예고1, 테너)이 루이지 루찌의 '아베 마리아'와 조두남의 '그리움'을 노래한다. 경건하고 차분한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이탈리아 가곡에 이어 고진숙 작시로 떠난간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애절하게 표현한 한국 가곡 무

대가 펼쳐진다. 그리고 고보민(경북예고2, 튜바)이 본 윌리엄스의 '튜바 협주곡' 중 제3악장을 선보인다. 관악기 중 가장 크고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 튜바가 독주 악기로 나서 웅장하고 풍부한 저음 금관악기의 매력을 뽐낸다.

피커셔니스트 천지연(신명고3, 마림바)은 타악기의 꽃, 마림바로 프랑스 현대 작곡가 에마누엘 세조네의 '마림바 협주곡' 중 제2악장을 연주한다. 맑고 경쾌한 마림바의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끝으로 변채민(공산중2, 바이올린)이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중 제4악장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4악장은 스코틀랜드의 격렬한 전쟁 노래를 주제로 사용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독주 바이올린의 현란한 기교와 오케스트라의 역동적인 연주가 어우러지며 마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듯 활기찬 분위기에 끝맺는다.

한편 대구시향 박해산 부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으로 독일 프랑

크푸르트 음대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했다.

독일 괴팅엔 심포니, 남베스트팔렌 필하모니, 노이에 브란덴부르크 필하모니, 대구시향, 부천필하모니, KT심포니, 대전심포니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지난해 부천필하모니의 '차세대 지휘자'로 선정돼 다양한 기획 공연을 이끈 바 있다.

공연을 앞두고 박해산 부지휘자는 "평소 클래식 음악이 낯선 관객들도 다양한 독주 악기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협주곡의 주요 악장을 부담 없이 감상하는 좋은 기회"라며 "특히 클래식 음악가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응원과 격려 아낌없이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과 대구시향 사무실(053-250-1475)을 통해 1인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취소는 공연 전일 오후 5시까지 초등학교생 이상 입장 가능하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고보민(튜바)



천지연(마림바)



변채민(바이올린)



채서원(테너)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의성군 최치원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길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위의 인문학'은 인문학에 담긴 가치를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국비 1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치원문학관은 이달부터 '경북 북

부지역의 역사와 문화'을 주제로 강연하고 지역의 인문자원 탐방 등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월 격주로 인문학 전문가

들이 진행한다. 또한 강의 8회, 현장답사 3회 등 11회로 구성되며 수강생은 오는 25일까지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분들은 최치원문학

'경북 북부지역의 역사와 문화' 주제 강연 인문자원 탐방 등 결합된 프로그램 운영

관(054-834-8200)으로 문의하거나 최치원 문학관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최치원문학관은 총 3개의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군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문화욕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성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지례면 새마을회, 재능기부 '훈훈'



김천시 지례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4일 지례면 예지원에서 1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미용 봉사...

또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미용을 끝낸 어르신들에게 직접 조리한 콩국수를 대접했다.

고리 마을 어르신은 "봉사회원들이 머리를 손질해주시니 마음이 흐뭇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새마을부녀회장은 "이·미용 봉사로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박용국 면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해 주신 봉사회원들의 이웃사랑 실천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청도,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청도군은 지난 4일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위생 실천을 높이기 위해 청도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어린이 미래 지키는 '환경에너지 동요경연' 성료

환경운동실천협회 주관 대회 흥에랴 봉황초 학생 장관상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회는 지난 8일 제29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경주 화랑마을에서 개최한 '2024 전국 환경에너지 동요경연대회'에서 흥에랴(봉황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종합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개최됐으며 임옥식 경북도교육청 교육감,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권대훈 교육지원청장, 최영두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등 각계에서 축전과 축사를 통해 행사를 축하했다.

대회 결과 대상은 황남초등학교 6

학년 김가연, 대구동천초등학교 5학년 황지민, 들안길초등학교 4학년 박주하, 폐피멜로디중창단이 공동 수상했으며 최우수상 14팀, 특별상 4팀 등 계에서 축전과 축사를 통해 행사를 축하했다.

김현규 총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환한 미소로 자라날 수 있게 환경에너지 동요경연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회 모든 회원들과 아낌없는 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갖도록 하겠

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2024 전국 환경에너지 동요경연대회는 3년 간의 코로나19가 끝나고 마스크와 마스크 캡이 없는 첫 대회로 참가자와 학부모 350여명이 참석해 열린 경연과 응원을 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상주 북문동 새마을회, 사랑의 모내기 '구슬땀'

상주시 북문동에서는 지난 4일 새마을남녀지도자회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산동 180번지(약 2200㎡)에서 사랑의 모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원들은 농번기로 바쁜 일정에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념으로 모내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추후 수확된 벼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중학 협의회장과 강연숙 부녀회장은 "오늘 흘린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연말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동장은 "사랑의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발전하는 북문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월남전참전자회 고령지회, 호국보훈 숭선수범



월남전참전자회 고령군지회는 지난 4일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월남전참전자회는 충혼탑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정소를 통해 호국 보훈

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석길 회장은 "국가유공자로 모범을 보이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이번 환경정화 운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에 숭선수범 하겠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t1515@daum.net

영천 자양면, 마늘 농 일손 부족 해소 '팔 걷어'



영천시 자양면 직원들은 지난 4일 자양면 충효리의 마늘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일손 돕기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농촌 일손 돕기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해당 농가주는 "업무 보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직접 농사일까지 도와주시 참으로 고마울 따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분태 면장은 "일손 부족에 곤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동 정

경북도의회 1차 정례회 참석



임옥식 경북도교육감은 10일 오후 1시 40분 제347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1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제32회 안동길안단오제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오전 10시 길안면 단오공원에서 열리는 제32회 안동길안단오제에 참석한다.

청송 확대간부회의 주제



윤경희 청송군수는 10일 오전 9시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간부회의 참석·지역 현안 논의



오도창 영양군수는 10일 오전 8시 30분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간부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석포면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10일 오전 9시 40분 석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석포면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에 참석해 각종 지역현안을 논의한다.

봉화, 지역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



봉화군은 지난 4일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대피에 취약한 3층 이상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봉화해성병원과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2곳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군과 소방서, 민간 전문가 등 9명이 점검에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의료법 분야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6개 분야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없애고 점검 시 발견된 결함 사항은 현장 조치 명령했으며 시설별 안전에 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했다.

박현국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봉화군 문의처 | 봉화군 재정과 (054-679-6542)



청도군은 지난 3일부터 4주 동안 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촌이해와...

이번 농촌에서 살아보기 1기(귀촌...

1기 대상 가구들은 한달 동안 마을...

김하수 군수는 "이번에 진행되는...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김천 구성면, 휴경지 모심기 '구슬땀'



김천시 구성면은 지난 4일 새마을...

구성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작내리...

이번 활동을 통해 가을에 추수한...

또한 새마을경신과 Happy togeth...

이해정 면장은 "모심기 행사에...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구도시개발공사, 중소기업 성장 전폭 지원

IBK기업은행과 펀드 조성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경기...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발주 사업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다해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방 건설...

이런 '동반성장펀드' 협약을 통해...

정명섭 사장은 "지방 건설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경주서라벌라이온스, 지역 공헌 '술선수범'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

손석순 취임 회장은 "경북장애인...

박귀룡 센터장은 "모아 주신 정성이...

2006년 경북지역 최초로 지역 중...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영양, 군민 위해 노력한 친절공무원 3인 포상



영양군은 지난 3일 적극적으로 친절...

이번 포상자는 군 홈페이지 '칭찬...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칠곡 휴(休)레스트, 직무스트레스 굿바이~



칠곡군은 지난 7일 석적읍에 위치한...

이번 힐링교육은 숲을 시각·후각·미...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에스오 대표, 영천 저출생 극복 '힘'



영천시는 지난 5일 이은진 ㈜에스오...

이날 이은진 대표는 남편(박노근...

이은진 대표는 "영천이 함께출산을...

최기문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예천, 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예천군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군...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인...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사례를...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Large advertisement for '문경' (Mungyeong) featuring a scenic view of a castle and text promoting tourism and cultural heritage. Includes phrases like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and '공정의 힘'.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

◀윤경희 청송군수



청 송군은 올해 복지시책 추진방향을 ‘꼭 맞게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군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군은 올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 복지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사회보장수급가구(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결정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방문실제 확인 등으로 적절한 급여를 결정하고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사해 수급자격을 정비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맞춤형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인적안전망(안녕살피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구축해 복지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민조직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로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현할 수 있도록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운영·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발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 고립가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한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 IoT 장비를 통해 스마트 안부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요리교실을 운영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숲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구국·호국 의지를 불태우다 산화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수당,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 활성화 물품을 지원하고 특히 소파·임식테이블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경로당 좌식문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 사회보장수급가구 결정 관련 조사로 적정 급여 결정 최저생활보장·생활안정지원

■ 쓸쓸한 죽음 없도록... 고독사·사회적 고립 예방 추진 스마트 안부확인·모니터링 실시

■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책임 경로당 신축, 개·보수 등 진행 소파·임식테이블 적극적 보급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청송 부모급여·영유아보육료 등 지급 노후화 보육시설 ‘그린리모델링’ 다문화가족 문화적인 차이 해소 방문교육·우리말 공부방 등 운영

이와 더불어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려 나간다.

또한 기초연금지급, 어르신 목욕비 지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운영을 비롯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 분위기 장려에도 앞장선다.

부모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보호호성사업 등으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빠른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 방문교육 및 우리말 공부방, 사회적응 특화프로그램 등도 운영·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공공성을 강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안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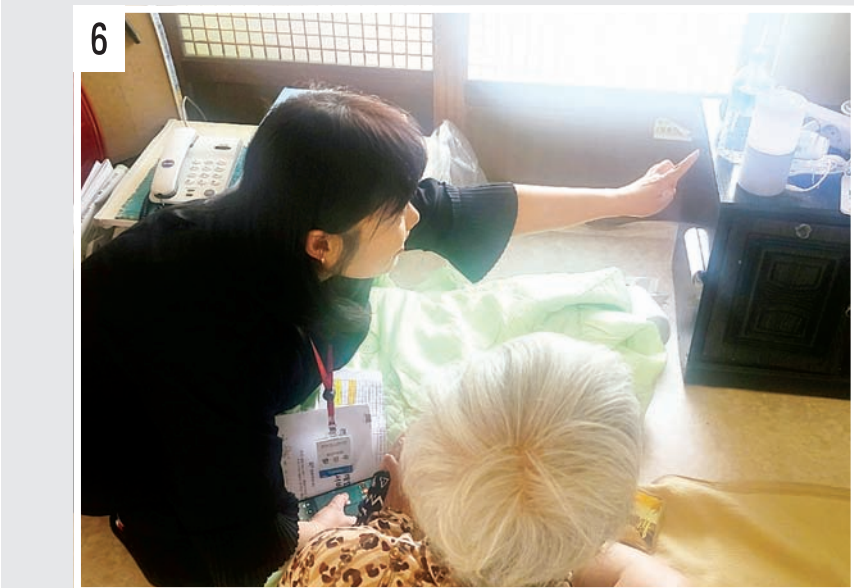
끝으로 학업 향상과 재능연마에 전념하도록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와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송인재양성원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며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청송 아카데미, 행복청송 군민대학,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복지청송, 그리고 군민의 삶이 보다 안정된 윤택한 행복 청송을 만들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 1 인재양성원.
- 2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 3 경로당 행복도우미.
- 4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5 보육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 6 스마트 안부확인.
- 7 중장년 요리교실 운영.
- 8 청소년 여가활동 기회 제공.



■ 의학 칼럼

현대인을 가장 위협하는 암 대장암(上)

이지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7523건의 암 가운데 대장암은 3만2751건(11.8%)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했고 연령대별로는 60대(26.3%), 70대(22.3%), 50대(19.6%)의 순서로 많이 발생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으로 떠오른 대장암,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장(큰창자)은 음식을 분해하지는 않고 수분을 흡수하고 음식물 찌꺼기로 분변을 형성해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소화기관이다. 소장(작은창자)의 끝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져 있으며 길이는 150cm 정도이다. 대장은 맹장(막창자), 결장(잡록창자, 대장의 대부분), 직장(곧창자) 그리고 항문관으로 나뉜다. 결장은 다시 상행결장(오름잡록창자), 횡행결장(가로잡록창자), 하행결장(내림잡록창자)으로 구분된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돌창자)의 말단과 대장의 초입인 맹장사이에는 회맹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

는 것을 막는다. 맹장 중앙부로부터 회맹 접합부 아래로는 충수(막창자꼬리)가 7-8cm가량 나와 있어 우리가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막창자 꼬리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에스자결장에 이어지는 직장은 길이 13-15cm 정도로 항문관으로 넘어가는 부위인 항문직장류에서 끝난다. 결장과 직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대장암이라고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결장에 생기면 결장암, 직장에 생기면 직장암이라고 하며 이를 통칭해 대장암 혹은 결장직장암이라고 한다. 대장암의 대부분은 대장 점막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샘암)으로 양성 종양인 선종성 용종(폴립)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암 이외에도 림프종, 신경내분비종양, 평활근육종 등이 생길 수 있다.

■ 초기 증상이 없는 대장암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질환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설사, 변비, 배변 후 뒤무직, 이전보다 가늘어진 변,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바뀌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 혈변이나 끈적한 점액변,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면 대장암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복부 불편감(복통이나 팽만감), 체중·근력의 감소, 피곤한 느낌, 식욕 부진, 소화불량, 울렁거림과 구토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때도 한 번쯤 대장암을 의심해야 한다.

암의 증상은 종양의 발생 위치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복부 오른쪽 대장에 종양이 생

기면 장의 폭이 넓고 대변이 아직 묽은 상태인 부위이기 때문에 장이 막히는 일이 별로 없고 흔히 만성적인 출혈과 그에 따른 빈혈이 발생한다. 반면 왼쪽 대장에 생기는 병변은 흔히 장이 막히는 증상을 일으키고 대부분의 환자는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한다.

■ 가장 정확한 검사방법은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는 의사가 직접 카메라로 대장 내부의 출혈 부위와 병변의 표면을 관찰하고 조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장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법이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 용종의 발견에 매우 민감하고 발견된 용종을 즉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검사 전 대장 정결이 필요하고 수면내시경이 아닌 경우 불편감이 있으며 암 등으로 대장 내강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다. 검진을 통해 선종 단계에서 용종을 발견해 대장내시경으로 제거하면 대장암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중요하다. 증상이 없는 저위험군은 45세 이후부터 매 5-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포이츠-예거스 증후군,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등이 있는 경우와 가족 중 연소기 용종증, 대장암 혹은 용종,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 고위험군은 전문의와 상담 후 검사 방법과 검사 간격을 결정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2515호에 계속)

■ 독자 기고

올바른 주차는 안전운전의 시작!

곽남숙
대한적십자사 대구봉사회
남구지협협의회 회장



21대 국회 4개 의원실에서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 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말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증가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시장 교란 등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점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개설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경찰은 강력사건 등 타 이슈사건 우선순위로 수사 장기화(건당 약 11개월 소요)로 재정누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으로 직접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및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 보유 등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사기, 시설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부터의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

해 약 3조4300억원 재정 누수(하루 약 6억3000만원 연 2300억원씩 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불법적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부당청구등을 막아 의료생태계를 보호해야할 긴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즉 사무장병원을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의료생태계가 파괴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된다면 사무장병원 퇴출로 정상적 진료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속한 수사종결(평균 11개월→3개월)을 통한 연간 약 2000억원 추가 재정누수 차단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설

유전 발표 근거는 '데이터 분석 기술'

정부가 '동해에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고 더욱 정확한 매장량과 위치 등을 조사하기 위한 탐사개발 계획을 밝혔다.

아직 탐사 단계로 매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1976년 박정희 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에서 '포항 영일만 부근 해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1년 만에 '시추 중단' 사실을 알려야 했다. 탐사시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이런 선례를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자신 있게 소위 '선(先)발표 후(後)탐사 시추 계획'을 밝힌 데는 이전과는 다른 데이터 분석의 기술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부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를 개시한다. 영일만 앞바다에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에너지자원(석유·가스)이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데이터 분석 능력과 탐사 기술의 발전을 이룬 '자원 발견'의 첫 요인으로 꼽았다.

산업부가 밝힌 이번 탐사·개발의 전후 과정을 보면 정부와 석유공사는 대륙붕과 천해 지역을 집중조사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심해 지역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석유공사가 동해지역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수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시작한 게 공사가 출범한 지난 1979년부터다.

전날 윤 대통령에 이어 브리핑을 이어받은 안덕근 산업장관은 "석유공사가 그동안 서해, 남해, 동해안 쪽으로 쫓 시추했다. 시추공만 48개"라며 "동해에만 27개 시추공을 시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지난 1988년 동해에서 4500만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생산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산유국으로서의 명칭을 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도 데이터는 축적됐고 지난 2022년에는 동해, 심해를 비롯한 모든 해역에서 탐사 작업을 수행하는 '광개토 프로젝트'도 수립했다. 특히 공사는 지난해 2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심해 평가 전문기관인 미국의 Act-Geo(액트지오)사에 17년간 축적한 동해 심해 탐사 자료를 보내 심층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ct-Geo사는 지난해 12월 동해 심해저에 대규모 가스·석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밀 분석은 지진파 분석을 비롯해 해저 지형에 대한 2D·3D 분석을 거쳐 유망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갖고 있던 시추 실패 데이터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말부터 정확한 매장규모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예상 매장 규모 중 4분의 3은 가스, 석유는 4분의 1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매장량이 확인되고 상업적인 시추 준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본격적인 상업개발은 오는 2035년이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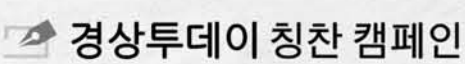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덕양빌딩 8층 구독료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APEC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y Cooperation)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기구입니다.

21개국 정상 및 대표단, 기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2025 APEC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GYEONGJU